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9차 회의록

1. 회의개요

- ① 일 시 : 2026년 9월 4일 (목) 15:00 ~ 18:45
- ②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실(413호)
- ③ 출석위원 : (위원장) 차정인
(상임위원) 김경희, 이광호
(위원) 김 건, 김영도, 김 용, 박영환, 반상진, 손덕제,
연취현, 윤건영, 이보미, 이슬기, 이 현, 전은영,
정근식
(총 16인)

2.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 재적위원 19인 중 16인 출석으로 성원

② 개회 및 모두말씀

- (간사) 위원장님의 개회선언과 모두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지금부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9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 반갑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입니다. 어느덧 더위가 한풀 꺾여서 한결 지내기 좋습니다.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국가교육위원회도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함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 임시회의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개최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충분히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의견과 적극적인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 건 위원 외 열 분이 요청한 대입제도 공론화 주요 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안전 등 공개 여부 결정

- (심의안전) '대입제도 공론화 주요 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심의' 부분 공개

[4] 활동 보고

- (간사) 그러면 지난 회의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관하여 사무처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무처장) 국가교육위원회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문위원회 활동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제25차 회의가 8월 19일 오후 3시에 온라인 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교육과정 거버넌스와 전문위원회의 역할, 인공지능시대 도래에 따른 교육과정 구성 방향 탐색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 2차 회의가 8월 7일 금요일, 8월 21일 금요일 개최되었습니다. 양일간의 회의에서는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와 학습기본권의 개념, 보장 근거 및 제도적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제19차 회의가 8월 19일 개최되었습니

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입제도 공론화 방안, 특히 국민참여위원회 숙의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사교육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가 8월 21일 금요일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이해에 대한 내용을 발제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문해력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가 8월 18일 화요일 개최되었습니다. 문해력 증진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각각의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다음은 국민 참여·소통 및 의견수렴 활동입니다.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입제도 현장토론회가 8월 11일 인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청 소속 교원·학생·학부모 및 국민참여위원들이 참여하여 대입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미래 대입제도에 대한 온라인 집중 의견수렴 기간이 8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서 미래 대입제도에 대한 질문을 게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국민 누구나 작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3,638명이 참여하여 6,765건이 개진되었습니다.
- 국민참여위원회 대입제도 관련 숙의토론이 8월 29일 토요일부터 8월 30일 일요일 경기도 화성 YBM 연수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참여위원님들이 참석하고 전문가 발제, 질의응답, 소그룹 토의 등을 통한 1박 2일 숙의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현장 방문으로 전남광주지역 학교 현장 방문이 8월 27일 목요일 진행되었습니다. 장소는 광주교대 광주부설초등학교였고요. 김경희 상임위원님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님, 사무처의 직원들과 전문위원 등이 학교현장의 공교육 혁신 모델을 운영 중인 수업에 참관하고, 학생·학부모·교원 간담회를 참석하였습니다.
-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포럼이 9월 3일 목요일 10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와 관련해서

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사의 경과 등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련 연구기관들이나 다른 위원회들과 정책포럼을 종종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AI시대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동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7월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포럼의 성격은 본격적으로 국교위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교육 현안에 대해서 각계 기관과 함께 현안 점검을 하는 형태로 포럼이 진행되었고, 그동안은 관례상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 사전보고 없이 그냥 진행을 해 왔습니다.

- 그리고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포럼의 경우에는 국교위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페이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연구 진행하는 것 중에서 이슈페이퍼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올 7월에 초등 저학년 하교 연장 관련 이슈페이퍼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주제에 대해 양 기관의 관심사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그리고 관련 이슈페이퍼를 진행해 온 한국교육개발원이 같이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서 공동포럼을 진행한 부분이고요.
-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정책화 단계에 있다기보다는 행사 계획 단계부터 연구자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의 교원이나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이 쟁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초기 계획 단계부터 학부모 단체의 토론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이것은 어떤 논의의 장을 연다는 생각으로 진행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개념으로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은 그 이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현안 이슈에 대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는 것으로 저희는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이

슈 자체가 워낙 관심이 많은 이슈다 보니 국민 여러분들이나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바 있음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이현 위원)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보고에 대해서 질문 간단히 하시지요.
- (이현 위원) 사무처장님이 정책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겨레신문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국교위는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이런 정책포럼을 열었다, 그리고 보도하기를 국교위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를 놓고 연 첫 공론화 자리다, 그러면 한겨레의 보도는 잘못된 겁니까?
- (사무처장) 그렇게 오해하실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 (이현 위원) 그러니까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 (사무처장)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이것을 의제로 설정하셔서 논의를 하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은 본위원회에서 먼저 논의를 하신 다음에 공론화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 위원) 제 질문은 그러니까 보도가 잘못된 것이냐고 여쭙습니다.
- (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 위원) 거기서 또 뭐라고 보도했느냐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저학년 하교시간을 현행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오보입니까?

- (사무처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 저학년 돌봄과 관련해서 이슈페이퍼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현 위원) 제 질문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오보냐고 질문드린 겁니다.
- (사무처장) 이슈페이퍼를 진행하는 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 위원) 따라서 한겨레신문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라는 것이네요.
- (사무처장)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슈페이퍼 진행하는 게 정책 추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지금,
- (이보미 위원)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 (위원장) 이것이 언론 보도의 잘못이냐 아니냐는 질문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 (이현 위원) 그런데 국교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는 게 만약에,
- (위원장)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이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교위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느냐면 한겨레신문이 이렇게 보도한 것은 실제 국교위는 이런데 이렇게 보도한 것은 사실을 잘못 보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그렇게 언론에 꼭 반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보미 위원) 저도 질문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사무처장께서 적절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보미 위원) 사무처장님, 예전에 교수님 한 분께서, 경남대 교수님 성함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희가 중장기 발전 계획 논의할 때 3시 하교제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서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 차 회의인지 모르겠는데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가 3시 하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을 때 그와 관련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고 3시 하교제 맞는다고 하시고, 이것이 추진되는 것이냐고 여쭙보니까 아니다,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그냥 논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의제를 선정하실 때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됐는지 국교위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어떤 의제를 시의적절하게 꺼내는 것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는 보지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3시 하교제가 선결되기 위해서, 오늘이 9·4 공교육 멈춤의 날 3주기거든요. 3년 전과 비교해도 전혀 선생님들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3시 하교를 꺼낸 것 자체가 논란을 부추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어떤 의견을 받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거기에서 나왔던 제목이나 줄 수 있는 그런 발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논의 이전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될 주당 수업시수 법제화라든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우리가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지도 않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돌봄 중심의 3시 하교, 교사 업무만 강화하는 그런 내용을 꺼내왔을 때는 당연히 비판이 올 수밖에 없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지금 이것부터 꺼내서 추진한다는 인상을 너무나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교현장에서는 전혀 교육 여건 개선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미스이고,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해서 이런 부분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 (김경희 상임위원) 상임위원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3시 하교제’, ‘전일제’라는 용어를 쓰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학부모 단체나 교원단체 입장이 대표적으로 엇갈리는 이슈 아니에요. 중장기 발전계획할 때 이런 이슈를 한번 우리가 걸러야 되거든요. 전문위원회인가 특위인가 어디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3시 하교제’, 누구는 ‘전일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래서 사무처와 제가 좀 많이 주장을 했는데 한 번 이것을 공론화를 하자, 특히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돌봄 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유치원은 3시 반까지 있다가 아이들을 보내는데 초등학교 가면 12시 반이 된다, 경력단절 된다, 이것이 강하게 이슈가 되어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잖아요.

-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교육 주체들이 교원단체도 있지만 학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의견 들어보자고 얘기를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사무처에서 위원님들한테 시간 되시면 한번 참여하시라고, 그리고 또 학부모 단체 추천도 받았어요. 상임위원의 입장에서는 여론 조성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참여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론 수렴하는 것까지 자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논의하는 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쟁점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 위원) 질문을 드린 것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요. 국가교육위원회가 그것을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 이것은 국가교육위원회 방침이 되잖아요.

- (김경희 상임위원) 아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확정하려면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처나 우리가 어떤 안을 내기 전에 과연 어떠한 국민적 여론이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탐색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지요.
- (이현 위원) 저는 상임위원님 말씀대로 얘기가 됐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보도를 보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는데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라고 제가 여쭙 것이고, 사실이라면 문제이고, 지금 상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침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그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니까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면 그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지요.
- (김경희 상임위원) 아니, 방침은 아시잖아요. 심의·의결을 해야 방침이 되는 것이지요. 의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현 위원) 지금 공론화는 우리가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3시는 우리가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제가 답을 드리면 위원장이 가서 인사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론화’, ‘여론수렴’ 이런 단어들을 흔히 인사말에 씁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우리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공론화나 여론수렴이 고유의 규범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다 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무처

장께서 잘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하실 수 있고, 추가적인 논의를 해 보자고 하실 수도 있고, 그때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여론수렴, 공론화 등을 우리 국가교육위원회 규범적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의 비중에 비추어 본위원회에서 논의하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⑤ 주요 내용

(심의안건) 대입제도 공론화 주요 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심의

- (간사) 다음은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대입제도 공론화 주요 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관한 심의로 김 건 위원님의 보고가 있은 이후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대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방향에 대해서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의 발제, 그리고 이어서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에 대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의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 (김건 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지난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저를 포함한 위원 열한 분께서 모여서 이렇게 본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 저희 제안취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입제도는 작성되어 있는 대로 교육과정의 운영, 학습 및 진로, 학생 선발, 그리고 공정성 및 격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저희 정책의 핵심사항입니다. 특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대입제도의 개편은 저희 교육과정과 대학의 선발방식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원·대학 등 모든 교육공동체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

의와 숙의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입제도 관련 의견수렴 계획안이 지난 8월 개최된 8차 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이는 보고에 그쳤을 뿐이고 그 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대한 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발제 내용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저희 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심의·논의를 하고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의 대입제도 관련 정책 논의 및 공론화 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넘겨서 심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첫 번째,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발제 내용의 취지 및 주요 논거, 두 번째, 각 발제에서 제기된 대입제도 관련 주요 쟁점, 세 번째, 주요 쟁점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 및 검토사항, 네 번째,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추가로 검토하거나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다섯 번째, 향후 대입제도에 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및 공론화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섯 가지 심의사항을 두 파트로 나누고자 합니다. 1번, 2번, 3번과 4번, 5번인데 저희가 추가로 공론화하거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원활한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3번 부분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신 그런 비공개 사유가 있을 만한 내용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려도 해소할 수 있고 원활한 논의, 그리고 애초에 이 안건을 제기한 의미에 맞는 그런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보고 중에 라, 마의 취지가 뭐지요? 이것이 이번에 공론화했던 발제자의 발제 내용 등을 넘어서는 대입제도 전반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겁니까?
- (김건 위원) 제가 해석하기로는 대입제도 자체보다는 공론화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공론화 과정이라 하면...
- (김건 위원)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공론화 방법에 있어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공론화를 심화시킬지에 대한 위원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연취현 위원) 추가로 저도 작성에 관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 책상에 올려져 있는 8차 회의의 안건을 보면 이 안건 자체는 대입제도 관련 의견수렴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서술형과 대입제도를 분리해서 논·서술형 확대에 대해서만 논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논·서술형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전제는 대입제도 관련 의견이기 때문에 대입제도와 관련해서 논·서술형 이외에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 있는지 혹은 그 외에 공론화 관련해서 그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없는지를 같이 논의하고, 그 와중에 순서가 지금 아까 김 건 위원님이 적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중에 이번에 토론자료에 나

와 있던 논·서술형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보고서에 대입제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공론 내용은 논·서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바대로 거기에 집중해서 논의를 하고요. 대입제도 전반으로 확산할 때는 비공개로 전환해야만 원활한 토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는 비공개로 전환할 것이다, 오늘 그것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비공개 전환의 대목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입제도 관련 의견 수렴 계획안이 8차 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보고된 바는 있지만 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 본위원회 차원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문제제기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의견수렴 계획안은 본위원회에 그 계획을 보고하고 이제 시행하면 되고, 다만, 아까 우리 과장께서 보고했듯이 대입제도 특위의 중간보고서는 7월인가 8월인가에 보고를 드렸죠?
- (숙의공론화과장) 예.
- (위원장)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토론을 못 했지만 그런 과정을, 시간에 쫓겼다는 것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었지만 사무처가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제 내용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 본위원회 차원의 심의·의결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심의·의결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토론을 하더라도 그 토론은 심의·의결이 아닙니다. 지금 공론화 등 진행되는 절

차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한 토론과 상호 이해 증진의 과정이지 심의·의결 과정은 아닙니다. 그 점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 건 위원님의 보고를 접수하고요.

- (간사) 다음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방향에 대해서 대학 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 (보고자A) 안녕하십니까,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발제하겠습니다.
-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3회에 걸친 현장토론회와 속의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AI 대전환 시대, 미래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개편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아이들이 20년 뒤 살아갈 사회의 바탕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2028년부터 2037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를 내다보고 새롭게 그려나갈 대입제도입니다.
- 인공지능이 지식을 다루는 일에 상당 부분을 대신하면서 인재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을 많이 아는가에서 그 지식을 어떻게 사고하고 활용하는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정답을 빠르게 찾는 교육은 오랫동안 우리의 강점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강점만으로는 부족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생각하는 힘, 곧,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번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버티는 시대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배우고 유연하게 적용하는 힘을 길러주는 일이 이제 우리가 맡아야 할 일입니다.
- 그런데 AI 못지않게 중요한 조용히 다가온 또 하나의 변화가 있

습니다. 인구입니다. 1970년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18.5세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합계출산율 0.8명대, 2072년에는 중위연령이 63.9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도 인구는 매달 1만 명씩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수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령인구는 750만 명에서 278만 명으로 줄어 듭니다.

- 동시에 지금까지 암기해 온 지식의 값도 떨어 집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교육은 이제 배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교육과 대입제도를 근본부터 다시 살펴 봐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우리의 지금 교육시스템은 이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육과정 따로,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움직이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려고 하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석차를 매기는 상대평가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배우고 싶은 과목이 아니라 등급 받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수능은 짧은 시간에 정답을 가려내는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어 학교 수업만으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느 한 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 축이 저마다 성실하게, 그러나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지금의 교육과 대입제도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현실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먼저 수능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행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수학은 한 문항에 3분 20초, 나머지 과목은 대체로 1분 30초에서 1분 47초 안에 풀어야 합니다. 형식은 5지선다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정답을 빠르게 골라내는 훈련을 우리 아이들은 12년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AI는 같은 문제를 1초 만에 푹니다. 1분 30초와 1초라는 이 간극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재고 있는 것이 정말 사고력인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정답을 빨리 찾는 기술이 아이에게 무엇으로 남을지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 내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별로 세부제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OECD 주요 국가는 학생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절대평가를 채택하고 협력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또래 안에서 석차를 매기는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급 비율이 정해져 있는 교실에서 동급생은 배움을 나누는 동료가 아니라 넘어서야 할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었으면 아이들이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을 가르치는데 협력이 불가능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이 어긋난 구조는 결국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수능이 끝난 뒤 고3 학생의 등교율이 57%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부 학교는 8.7%까지 낮아졌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의 2022년 조사에서는 교실에 남은 학생조차 64%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명 교실이라면 16명이 옆으려 있는 겁

니다. 고등학교의 소중한 마지막 학기가 배움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대입 일정과 교육과정의 어긋난 구조가 만든 결과입니다.

-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국민참여위원회에서 주신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시대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참여위원단이 내놓은 733건의 응답을 분류한 결과입니다. 1위와 2위인 과정 중심 서술형 평가 전환과 토론·프로젝트 중심 학습을 합치면 52.8%로 절반이 넘습니다. 이는 낡은 정답 찍기 식 암기교육을 멈추고 이제 우리 아이들의 진짜 사고력을 키워달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주목할 것은 순서입니다. 국참위 위원들께서는 AI 활용 교육보다 평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먼저 꼽으셨습니다. 평가를 바꾸지 않으면 수업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목소리를 포함해서 저희 대입특위가 12월 3일부터 총 18차에 걸쳐 논의한 의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대입 공정성, 절대평가, 서·논술형 평가, 3학년 2학기 정상화, 대학 자율화 등 하나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들입니다. 우리 대입 특위는 이 의제를 놓고 오래 시간 토론해 왔습니다. 미래 사회에 맞는 학교 교육과 대입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가운데 어떤 단어들은 서로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하나를 세우면 다른 한쪽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하나를 서둘러서 답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합의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한 마디로 서두르지 않는 개편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현장

에 혼란을 초래했던 뼈아픈 경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혼란의 대가는 항상 교실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입 특위는 네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준비가 먼저입니다. 제도를 발표해 놓고 현장이 뒤따라오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준비를 마친 뒤에 제도를 시행하는 순서의 전환입니다. 두 번째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입으로 순차 적용합니다. 세 번째, 수업과 내신, 수능을 하나로 잇겠습니다. 배운 것을 평가하고 평가한 것을 묻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중심에 두고 AI를 보조수단으로 삼아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AI가 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 국민적 숙의를 통해서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지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어떤 대입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 동 박 수)

- (간사) 이어서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에 대해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 (보고자B)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이고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를 맡고 있습니다.
-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 AI 시대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AI는 정답과 지식을 탑재한 역량 증폭기입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바닥에 추락하지 않고 비행기를 조립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AI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교육이 해야 되는 것은 착륙이 아니라 그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널 수 있게 해야 되고, 태평양을 건너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AI는 특별히 여태까지 만들어진 도구'를'이라는 조사 대신 도구'와'라는 조사를 쓸 수 있게 된 최초의 도구이고요. 지금은 AI 전환의 굉장한 과도기입니다. 조만간 AI가 스마트폰처럼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AI 시대에 평가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 교육이 대부분 평가가 목적인 교육이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기존 평가에서 앞으로는 과정 중심, 문제해결 과정, 그다음에 지속적 성장을 기록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 평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국교위에 AI시대교육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됐었는데요. 이때 43,812명이 응답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평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가 고차원적 사고가 가능해야 된다고 해서 아까 대입 특위에서 나온 결과와 거의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당위성은 점점 커졌고, AI가 나온 다음에 더 커졌는데 실제 서·논술형 평가를 막아온 구체적인 병목은 채점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채점자 간, 선생님 간 편차가 있고, 선생님 한 분에 의해서도 먼저 채점한 사

람과 나중에 채점한 사람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수능과 같이 대규모 시험인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서·논술형 평가가 채점에 도입이 어려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 그러면 서·논술형 평가를 AI로 채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충남교육청, 그리고 대구교육청이 10월쯤부터 서·논술형 평가를 시범운영 하기로 되었고, 저희가 듣는 바로는 선생님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실제 출제와 채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우리가 보통 쓰는 ChatGPT에 답안지를 넣고 ‘몇 점이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서·논술형 평가형 AI가 따로 있고요. 그 AI는 교과과정 성취기준을 학습하고 서·논술형 평가의 문제와 답, 그다음에 평가기준을 엄청나게 학습한 AI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교사가 냅니다. 교사가 문제와 평가 rubric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AI가 그것이 교과과정, 성취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AI가 일차 채점을 하는데 채점 결과는 점수가 아니라 점수 더하기 이 점수가 나온 근거를 적어서 교사한테 보여주고요. 교사는 그것을 최종 확정합니다. 우리가 ‘Human-In-The-Loop’라는 말을 쓰는데 이 경우는 Human-In-The-Loop가 아니라 Human-In-Command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모든 결정은 선생님이 하시게 되고요.
- 그러고 나면 선생님의 역할이 사실은 채점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고하는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의 AI시대교육 특별위원회 설문에서도 교사

의 역할이 facilitator의 역할,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실제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우려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실제 시스템 개발은 평가에 대한 문항과 평가기준, 채점 결과, 여기에 관한 골드 스탠더드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 학습을 해서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고, 파일럿을 하고, 점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와 AI가 평가할 때, 또 AI가 시간 단위로 다르게 평가했을 때 일치도를 비교해서 계속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시 표본 감시를 통해서 AI가 평가한 내용들이 정말로 지속가능한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 또 다른 문제는 평가를 할 때 문제 답안지를 스캔해서 AI가 쓰게 되는데 그때 개인정보 이슈가 있겠지요. 개인정보 이슈는 블라인드 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폐쇄된 망 안에서 채점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 dataset을 만들기 위한 극히 일부의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보존하고 파기하고, 이것은 기존의 문제점과 비슷할 것이고요. 오채점의 우려는 최종적으로 교사가 확정을 하고, 교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를 이용해서 채점 격차 확대를 막을 수 있지요. 그다음에 부정사용의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모든 AI 시스템이 마찬가지로 Red-Team 테스트를 굉장히 섬세하게 해서 온갖 부정사용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게 될 겁니다.
- 궁극적으로는 시험 채점이 문제가 아니고 AI를 이용해서 학습 성장 전 생애 역량 관리를 하겠다는 게 목표이고, 일단 이 서·논술형 채점에 관해서는 처음에는 수행평가나 내신 같은 저부담 시험

에 적용을 하고 점차 확대해서 수능과 같은 고부담 평가에 반영을 하고 이후에 AI 기반으로 평생교육에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발제의 취지, 발제에서 의문되는 점, 그런 것에 집중해서 질문을 간단히 해 주시고, 발제 내용에 집중해서 좀 질문을 길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보미 위원) 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두 번째 발제하신 분께 여쭙보고 싶은데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해서 대구 사례 들어주셨는데 저도 기사를 찾아보다가 얼마 전에 10월부터 'DEPTH'라고 하는 AI 평가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원단체들도 2년, 3년 가까이 이것을 개발해 왔다고 해서 좀 알아보더니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금시초문인 경우가 많고,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알아보니까 미래학교라고 하는 몇 개 시범학교들, 65개 학교들의 데이터, 아이들이 평가했던 시험지 이런 것 달라고 교육청이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든 것 같은데, 평가가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이기에 평가가 좋았다고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희 대구 교사들도 지금 전혀 몰라서 알아보는 과정에 있거든요. 어떤 점이 좋았다고 하던가요?
-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DT 때도 학생들이 쓴 답안에서 어떤 단어 하나의 띄어쓰기만 잘못돼도 오답으로 인식하고 교과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평가는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채점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문자 인식'이라는 말은

되게 거창한데 평가 잘못해서 일일이 어쨌든 선생님이 다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 오답인데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완벽에 가까운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전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발전하겠지만 어떤 근거로 대구교육청의 이 사례가 아주 좋았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보고자B) 대구교육청은 아직 AI로 채점을 하고 있지 않고요. DEPTH 시스템은 서·논술형 평가를 여태까지 진행해 왔고 10월부터 AI로 채점하는 것을 시범운영 하겠다고 했고요. 서울, 경기, 충남은 지난번에 국교위와 전략위원회가 같이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는 선생님들이 이 AI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발표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얘기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 위원) 두 분 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히 첫 번째 발표를 듣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전제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상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오래해 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해결력이나 창의적인 사고력이 좀 낮다, 그런데 이것이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큰 문제가 되니 평가방식을 바꿔서 이 문제를 바꿔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 전제 같습니다.

- 그런데 아마 오늘 소략하게 발표를 하셔서 그렇겠지만 현재 보여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잘 보이지 않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떤 질문이 생겼

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력 수준, 또 역량, 이런 것을 판단할 때 그나마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제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아니겠어요. 대표적으로 PISA 평가 결과를 가지고 대충 세계 여러 국가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보는데 2012년 PISA 평가에서 과목을 제외하고 그 당시에 일반 문제해결력 부문에서 우리가 세계 1위였습니다. 그다음에 치러진 2015년 PISA 평가에서는 협력적 문제해결력 부문에서 우리가 2위에서 5위 사이 구간에 들었습니다. 2022년 치러진 평가 가운데 창의력, 사고력 부문에서는 저희가 1위에서 3위 사이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3개의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이나 협력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A) 지식 암기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데는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것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 그런데 PISA 결과를 또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이때 봤던 아이들이 과연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 지금 AI 대전환 시대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 거기에 주어져 있는 환경, 주어져 있는 조건에 맞는 정답을 고르는 것은 잘하는데 지금 현재 시대에서는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PISA 결과가 아이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PISA 결과도 한번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

다.

-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평생교육까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답을 고르는 것은 중요하나 그 이상의 더 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식 암기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용 위원) 보충질문인데 그러니까,
- (위원장) 보충질문은 짧게 해 주세요.
- (김용 위원) 예. 지식 암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를테면 수행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도입하고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우리 교육의 나름의 강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인식하고 있을까, 이런 문제와 PIACC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인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야말로 대입제도 하나로 결정이 되는 나라라서 그 후에 학습기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다른 위원님.
- (이현 위원) 제가 김 용 교수님 질문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논·서술형이 AI 시대에 필요한 평가다, 객관식은 더 이상 안 된다, 논·서술형으로 평가해야지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의 얘기가 분과장님한테도 같이 이어져서 되고 있는 것인데 질문은 이런 것이지요. 논·서술형 평가가 객관식 평가에 비해서는 지식의 깊이나 사고력의 깊이나 지식의 응용력의 깊이를 깊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그런데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과 논·서술로 평가하면 아이들의 창의력이 높아지고 비판적 사고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 김 용 선생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드신 게 뭐냐 하면 어떻게 객관식으로 시험 보는 한국 학생들이 PISA 창의력 평가에서 아까 2~3위권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2위, 3위가 공동 2위입니다. 2022 결과입니다. 2022 창의적 사고력이에요. 거기서 한국이 2등을 했습니다. 논·서술로 시험 보는 대표적인 나라 아비투어 보는 독일과 바칼로레아 보는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로 인용이 되지요. 12위, 16위에 있어요. 그러면 논·서술로 평가하는 나라는 창의적 사고력이 십몇 위에 가 있고, 객관식으로 찍기 공부를 했다고 폄하하시는 한국 학생들은 2위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냐, 이것이 질문의 요지였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보고자A) 현재의 교육이 잘못되었다, 완전히 다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2011년에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이라는 게 나오면서 수행평가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리고 서·논술형 평가를 그때부터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좋은 교육을 2011년부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포커스가 다 수능, 그것도 객관식 5지선다, 이쪽으로 몰려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위원장) 참고로 하나만 보태면 PISA 평가를 몇 살 때 하지요?
- (이현 위원) 15살 때 합니다.
- (위원장) 중학교 2학년 때 하지요. 중학교 2학년 때의 상황입니다.
- (보고자A) 중2 이후에는 대입이 걸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위원장) 초·중·고 대입제도의 문제점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통 인식하고 있지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른 분 질문 들겠습니다.
- (손덕제 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나 다 공감하시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객관식을 악으로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운전면허 시험도 다 지식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호등도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은 조금 전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서·논술형이 시험 칠 때도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시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정해져 있는 답을 향해 서·논술형도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거기서 굉장히 큰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은 또 사교육을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 답을 찾는 많은 소요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를 바꾸면 그 밑의 내용들이 바뀔 것이라고 아까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고교학점제라는 것도 사실 저희가 2016

년도부터 정책 추진이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전면 시행이 되어서 28년도에 5등급제로 해서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게 1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서·논술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인데 대략적으로 이것이 정착되는 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12년이 걸린 것을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왜 12년일까,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부모님들이 너는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추진되어서 학령기를 다 지나고 시험을 칠 때쯤 되는 게 12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정책을 할 때는 아까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굉장히 공감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속도에 대한 부분들, 정착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정착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발표했는데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 (보고자A) 그것은 저희 특위에서 정말정말 엄청난 토론과 격론과 토의를 거친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100% 공감합니다. 너무 빨리 정책을 추진하다가 아이들이 피해 본 적이 너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주문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시 한번 해서 아주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현 위원) 분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두 번 질문하셨는데 한 번도 안 한 다른 분이 먼저 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 위원) 예, 제가 뒤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연취현 위원님.
- (연취현 위원) 지난번에도 논·서술형 확대와 관련해서 학부모 입장에서 우려를 상당 부분 말씀드렸는데 오늘 발제 듣고서도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김 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 아이들 수행평가까지 들어와 있고 초등학교부터 논·서술형 교육이 확대되고 있고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고 깊이 있는 교육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대입제도 개편의 일환으로서 논·서술형 확대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 그 전제로 볼 때 우리 자료집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말씀하시면서 위원님께서 배우는 것과 시험 보는 것이 다른 나라, 교육과정, 내신, 수능이 각자 다르고 이것을 통합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육에서 내신도 빼고 수능도 빼고 논·서술형 평가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고 고교에서 교육과정을 배우면서 내신도 평가하고 현재의 수행평가도 그대로 두고 수능도 하면서 논·서술형을 추가하는 것입니까? 저희 학부모들은 이것이 제일 궁금하고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많은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는 논·서술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가 매우 궁금하고 우려스럽습니다. 자칫하면 하나의 짐을 더 부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매우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전환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연취현 위원) 예. 답변을 안 주셔도 일단 질문은 제가,

- (위원장) 질문 이해하셨지요?
- (보고자A) 예.
- (연취현 위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AI가 1초 동안 푸는 문제를 12년 동안’ 이 자료에서 각 시간이 무엇을 산정한 시간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능 시험을 어떻게 몇 학년이 푸는 것인지 나와 있지 않고 약간 선동적이라고 할까, 1초 동안 푸는 것을 3분 20초 동안 푼다고 하시는데 마치 객관식 평가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보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지식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약간 편향된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 마찬가지로 28페이지에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의 현실에 대한 percentage도 마찬가지입니다. 57%가 등교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미참여율이 64%라고 하셨는데 언제 기준인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고 수치만 인용되어 있어서 그 근거의 정당성이 우려가 됩니다. 특히 일반 학부모들에게 이 자료를 제시할 때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또는 이게 어디에 출처를 두고 있는지 언제적 자료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우려만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이제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인데 AI를 바탕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학부모로서는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AI가 평가하는 것은 항상 공정합니까?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평가하신 것과 AI의 평가가 상당 부분 차이가 날 때 이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우려나 의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 그리고 분과장님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 게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사의 일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부분인데 제가 발제를 들으면서 지금 대학 교수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리포트나 발표자료 에세이를 AI로 돌려서 가지고 오는 것인데 지금 분과장님 발제를 들으면 AI를 활용하는 기술을 잘할 수 있도록 감독해 주고 그것을 통해서 지식 베이스를 높이는 것이 교사들의 역할이라면 앞으로 교수들의 역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교사들의 역할을 과연 AI를 활용해서 성장하도록 코치하는 역할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보고자A)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 굉장히 많은 것을 여쭙보셨는데 27페이지에 있는 AI가 1초 안에 푼다는 것은 수능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능에서의 영역별 문항 수, 그러니까 수학이 100분 동안 30문항 풀고, 그래서 그것을 시간별로 보여준 것이고요. 선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 (연취현 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전혀 없어서요.

- (보고자A) 거기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수학 밑에 '30문항·100분' 이렇게 쓰여 있고요. 이것이 수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있는 57%와 64%의 근거는 서울시 교육청 관내 고교 등교율이라고 하는 보고자료가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64%라고 하는 것은 좋은교사운동에서 일반고 고3 수업 미참여 실태 설문을 했던 2022년 자료입

니다. 3학년 2학기 정상화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3학년 2학기에 얼마나 수업이 파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 (연취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원자료에 나와 있는 어떤 학교에서 어떤 날짜 기간 동안인지, 예를 들어 수능이 종료된 이후인지 이전인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percentage 수치로만 제공된 것은 그냥 단순히 고3 교실이 파행화되어 있다는 상징에 불과한 것이지 근거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고자A)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보다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자료를 그래도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렸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김영도 위원)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의 제목이 사회가 많이 바뀌는 이유, AI 때문에 산업도 바뀌고 사회가 많이 바뀌는데 AI 때문에 대입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이런 타이틀로 발제문의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좋은 대학을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많이 지원하고 도와주는데 한국은 유독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대학 입시 제도가 사회에서의 어떤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AI 때문에 제도를 바꾼다는 게 너무너무 앞세워져 있어서 결국은 AI 시대에도 대학 가는 게 문제구나, 그런데 가는 방법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발제문 마지막에 보니까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커야 될까가 먼저 결론으로 나와서 그래도 사람을 먼저 생

각하시는지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의 교육이 유효한데 그것을 바꿔야 되느냐, 이제는 AI 시대 때문에 서·논술형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대립적인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어느 한쪽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발제는 서·논술형으로 바꿨을 때 AI로 이제 평가를 잘할 수 있다, 너무 또 이것은 대입 단계에서 방법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국가 미래 교육을 고민하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인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고 인성을 함양하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의 고민이 너무 어떤 제도에 묻혀버리는, 그래서 모든 분들이 AI에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진화되는 단계는 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AI는 정확히는 Narrow AI입니다. 우리가 질문 던지고 요구하는 것에 답만 주는 AI인데 어제인가 ChatGPT 5.1이 나오면서 자기들은 AGI로 접근했다, 그것은 이제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권한만 주면 사람처럼 결정해서 권한을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단계의 AGI입니다. 2035년에는 지금 예측되는 게 AXI입니다. Super Intelligence, 초지능,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풀지 못한 문제, 생명 문제, 노화 문제, 이것을 풀어내는 겁니다.
-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AI는 완성이 아닙니다. 아직도 급격히 진화하는데 이 진화되는 AI를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사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이 시대에는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왜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같이 연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AI가 이렇게 진화를 해서 사람보다 지능이 넘어가면 이제는 앞으로 대학을 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까지, 그래서 대학의 역할과 가치가 없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입시가 무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국교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대입제도를 주제로 발제하시다 보니까, 또 논·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발제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발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외에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것들은 따로 국교위가 여러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본인의 주장보다는 발제 내용에 대한 질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임시회의가 2시간 예정되었는데 그 안에 마치기 힘들 것 같고 한 30분은 초과할 것 같은데 시간을 각자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 (반상진 위원) 제가 발제자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교육계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꾸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 질문인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두 분께 각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 지금 서·논술형 평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육학 입장에서는 인지 발달 단계라든지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논·서술 평가가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다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논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인문사회 교과 같은 경우는 논·서술형으로 평가해도 된다고 하지만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도

논·서술형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 (위원장) 그 부분은 좀 전환을 해서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반상진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할 때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우리 분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AI가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서·논술형 평가를 막은 병목이 채점이다, 이렇게 채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인데 평가를 AI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채점한다면 AI의 역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AI가 모든 것을 이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저께 뉴스 봤더니 뉴욕에서는 교육에서 AI 사용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AI 맞춤형 교육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육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 또 하나는 2018년도에 일본에서 ‘미래문’이라는 AI 프로그램에서 입시 문제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더라고요. MBC에서도 그때 보도가 크게 났었는데 이런 식으로 AI의 순기능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역기능이 있다면 우리가 그 역기능을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지 그런 지점도 말씀해 주셔야 이 정책 설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역기능에 대한 그렇지마는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보고자B) 질문하신 것은 서·논술형 평가와 조금 거리가 있는 질

문이신데요. 뉴욕에서 금지한 것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교육위원회든 예를 들어서 AI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교육 행위 자체에 AI를 들여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AI를 교실에서 얼마나 활용할지는 결정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 아까 연취현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래서 선생님이나 교수가 AI를 가르쳐야 된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것은 결국 가정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아마 초·중·고 선생님들은 교과과정에 있는 내용을 잘 가르치시고, 지금 가르치는 와중에 AI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도구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채점 상황에 들어왔을 때 제 기술적 견해로는 생각보다 정교하게 채점을 사람보다 적어도 못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찰로는 사람의 인지적 부하를 능가하는 안정적인 상태로 채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기술적인 나음이라는 것이 무조건 우수하다는 게 아니라 서·논술형 평가의 채점비용을 아주 줄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혹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서·논술형 평가로 훨씬 더 가치롭게 학습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결정된다고 그러면 AI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반상진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말씀 중에서 AI 채점을 한다면 교육계에서 평가 채점 시스템으로 도입되는 그 순간 특히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AI의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좀 보완한다고

한다면 그다음 질문이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지? 학생마다 AI를 활용해서 채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정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학원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뻔히 보이는 현상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인 겁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서 설계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고,

- (보고자B)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AI가 어떻게 사용되고 그것에 대한 divide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질문이신데요.
- (위원장) 질문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AI 서·논술형 채점방식을 도입하는 순간 학생들의 AI 활용 기술이 중요해져서 그 교육을 상당히 해야만 하게 될 것이라는 질문인데 그렇습니까?
- (반상진 위원) 예.
- (보고자B) 그것은 2개가 상관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뭘 배우고 어떻게 평가받느냐와 그것이 AI를 사용하는 역량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될지 뭘 배워야 될지는 교과과정과 성취기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은 역시 종이로 답을 쓰고, 컴퓨터로 답을 써도 되지만 그것은 방법의 문제인 것이지 학생들이 배우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이슬기 위원님.
- (이슬기 위원) 하나씩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공부를 계속 하면서 늘 글쓰기를 공교육 때 좀 더 배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이 늘 있었어서 그 방향성에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수의 학생들에게도 학습 동기를 유지시키거나 높이는 데에도 이 서·논술형이 유효할지 그 지점이 좀 궁금하고요.

- 그리고 분과장님께는 평가는 채용과 비슷하게 고영향 AI잖아요. 그래서 EU 같은 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한 사전평가 같은 것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AI법은 그런 규제나 사전평가 같은 것이 약간 부족하다고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규제방법, 인프라, 제도에서 이 시기에 관한 것인데 당연히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게 될 텐데 우리나라의 에듀테크가 지금 아주 성숙한 단계도 아니거니와 지금 교육청에서 다 다루면 이것을 나중에 합치고 표준화하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AI가 성격상 약간 베타테스트 격으로 가면서 이게 개선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짧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 방향에는 동감하는데 이 시기가, 그리고 36페이지에 있는 검증 장치 3개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된다고 하면 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선제되어야 할 인프라와 성숙도가 어마무시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보고자A)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국가교육을 논하는데 중심이 AI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AI는 도구이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AI에게 인간이 종속되면 안 되고 AI한테 우리 인간의 고유 역량을 내주면 안 되거든요. 그 고유 역량이 뭐냐 하면 질문하고 궁금해 하고, 그리고 논증을 하는 부분, 그리고 해결하는 그런 인재를 키워주자, 우리가 그런 사고력과 그런 시각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서·논술형

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AI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인간의 중심에는 당연히 선생님과 학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채점을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피드백은 선생님이 주실 것이고, 아이에게 한 번 더 다가가실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객관식은 그냥 O, X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아이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저는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아이들의 동기, 저는 사실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학습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의 문제인식을 하고 어떤 자료를 찾아봐서 그것들을 요약해서 자신의 언어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쓰는 것, 이것이 사실은 모든 교육의 최종 종착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요구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AI 시대에 오히려 인간의 고유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우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고 천천히 논의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 (이보미 위원) 저도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질문 중에 분과장님이 먼저 답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 (보고자B) 아까 말씀하신 AI가 교육에 들어올 때 고영향으로 분류되는 체계는 지금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 고영향인 사유는 최종적인 판단을 AI가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로 서·논술형 평가 시험 문제를 채점해도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Human-In-Comman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최종 판단을 하면 고영향 AI로 분류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 그다음에 교육청들이 각자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청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략위와 교육부와 여러 군데에서 비슷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맨 밑에 잘 훈련된 AI를 바닥에 똑같이 깔아놓고 그다음에 교육청마다 어찌면 교육과정이나 성취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될 것이고, 이것이 어느 날 느닷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점차 검증을 확대하고 고부담군 시험으로 바뀌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 (박영환 위원) 첫 번째 발제하신 위원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발제자이신 분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9페이지에 보면 인공지능시대에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이 논의를 하는 게 지금 평가 제도를 바꾸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입시경쟁 교육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혼재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생각을 사실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 제도를 바꾸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마치 귀결되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은 AI가 채운다는 것으로 자꾸 정답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아서 이것이 맞나 하는 하나의 고민이 좀 있고요.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제 고민입니다.

-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교사들한테 현재 고교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를 일단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서·논술 평가 도입을 정해 놓고 여러 근거가 붙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교사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10년 이내에 무엇을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해 본 바가 있는지 여쭙고요.
-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천천히 논의해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천히’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말에 중장기 발전계획 시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 시안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천천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10월 말에 발표가 되고 나면 지역별로 국민참여위원회라든지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고, 이것이 내년 3월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의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학교 현장은 대단히 바쁜 시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속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시간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논의해

서 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무언가를 정해 놓고서 천천히 간다는 것인지, 가다가 안 되면 그냥 회귀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 그리고 두 번째 발제하신 분께서는 33페이지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 43,812명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49.6%가 학부모가 꼽은 시급한 과제 1위로 입시·평가체제 개편이고, 그 아래쪽에 보면 학생·학부모·교사 3주체 공통 요구가 정답 중심 평가 개선, 과정 중심·탐구 중심 평가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뒤에 보면 갑자기 서·논술형 평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학부모가 꼽은 시급한 과제 1위와 3주체 공통 요구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거나 도입했지만 어그러지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보고자A) 정답을 정해 놓고 여쭙보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을 정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숙의과정이나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해져 있는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요.
- 그리고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냥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대입 특위에서 얘기했을 때 가장 중심은 공교육 중심성의 회복입니다. 교육과정과 내신과 수능이 왜 다르냐, 이게 같아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그대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것이 수능으로 이어져서 대학교육까지 연결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지금은 정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 저희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봤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는 대입 특위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를 포함한 고교 교사도 있고, 대학입학 관계자도 있고, 또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을 때에는 관련된 유관기관 분들을 모셔서 정확하게 전문가들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같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 ‘천천히’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는 말하기 곤란하지 않나, 하지만 우리가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꼭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년에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보미 위원님이 제일 먼저 세웠나요? 누가 제일 먼저 세웠지요?
- (박영환 위원) 제가 분과장님께 질문드린 게 있습니다.
- (보고자B) 국교위의 AI 특별위원회에서는 문제의식을 묻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는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은 사실 그때 설문조사의 항목은 아니었고요. 그 원인 분석은 누가 해야 될까요?

(웃 음)

저희의 핵심 논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 (박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의식이 더 큰 겁니다. 질문을 던진 것과 문제분석에 기반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 분석이 없고 결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의식을 던진 겁니다. 이따가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 현 위원과 이보미 위원 중에 누가 먼저 드셨지요?
- (이보미 위원) 먼저 하세요.

- (위원장)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 위원) 저도 분과장님한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합니다.
- 분과장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에서 33페이지에 보면 AI 시대 평가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 그리고 위원님 문제의식과 전체적으로 맥락을 연결시키면 AI 시대에 객관식 평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적다, 서·논술형으로 평가하면 AI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맞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분과장님은 과학자시잖아요.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평가가 바뀌면 교육이 바뀐다, 학술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서·논술형 평가 하면 AI 시대에 걸맞은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학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보고자B) 저한테는 없습니다.
- (이현 위원) 근거가 없는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1번 질문입니다.
- (위원장) 그 부분은 토론사항이고요.
- (이현 위원) 제가 분과장님한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과감하게 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입니다. 어차피 교사가 최종 평가를 책임져야 된다, 고등학교를 예로 들어볼게요. 고등학교의 어떤 국어선생님이 네 반 수업하시면서 100명 정도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학생들의 100장의 서술형, 논술형 답안지가 나오겠지요. 그 100장의 답안지를 교사가 모두 다 봐야 됩니까? 안 봐

도 됩니까? 제가 질문 이어서 할 테니까 한 번에 대답해 주시지요. 안 봐도 된다면 안 봐도 되는 이유, 만약에 봐야 된다면 교사가 100장의 답안지를 다 보고 나서 AI가 채점한 결과도 또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개를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AI 채점 중에 이것은 잘했으니깐 ‘AI 채점 오케이’, AI 채점 중에 ‘이것은 rubric과 잘 안 맞으니깐 이것은 내가 고쳐줄게’, 저는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학생들의 답안지 100장을 다 보고, 그다음에 AI가 채점한 것도 또 보고, 2개를 또 비교해서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 세 번째 질문까지 마저 드릴게요. 교사가 채점을 고치든 고치지 않든 이 채점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채점 과정과 근거, 공개를 요구하거나 점수의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소송으로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경우에 교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만약에 한국적 분위기라면 이런 일도 벌어질 것 같아요. ‘내가 집에서 30만 원짜리 Gemini를 쓰고 있는데 집에 있는 AI로 채점해 보니 우리 아이 채점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선생님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채점하세요?’ 이런 식의 민원과 소송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시험 볼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감당하셔야 되나,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다면 훨씬 더 고부담 시험인 수능 점수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이것이 제 질문입니다. 질문이 길어졌지만 정리가 되실 것이라고 믿고 대답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B) 첫 번째 객관식 시험, 주관식 시험, 서·논술형 평가 이 부분이 학생들의 역량이나 성장 과정에 어느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연구를 지금 인용할 수 없다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 그다음에 교사가 최종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답안지도 보고 AI가 채점한 결과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업무 부담이 2배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AI가 채점한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학생들이 문제를 낸 결과를 봤을 때 비교하는 과정이 있고, 어떤 피드백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같이 교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아마 별로 바뀌지는 않았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교사가 100명을 채점할 때 첫 번째 시험과 마지막 시험지를 볼 때 그 인지적 부담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편차를 줄이는데는 굉장한 효과가 있고 편차를 교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 그다음에 채점 과정이 저는 AI에 의해서 비교적 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을 때 소송이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기는 했지만 이전에 다른 모든 시험과 똑같은 과정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정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부담 시험에는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실 AI가 안정적으로 채점이 될 때까지는 점차 확대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요.
- 그리고 말씀하신 우려 중에 저는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AI가 채점하든 지금 내신 수행평가 과정이 세특에 적히거든

요. 세특을 가지고 엄청난 소송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도 비교적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서·논술형 평가를 AI가 아닌 사람이 하는 많은 시·도 교육청이 있는데 거기의 결과를 보면 사실 이것의 챌린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제가 답변 취지를 정리할 필요가 발생했어요. 아까 두 번째 답변할 때 관련 연구를 지금 인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보고자B) 제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 (위원장) 인용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앞에 하신 근거가 저한테는 없다는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 (보고자B) 예, 맞습니다.
- (보고자A) 잠시 괜찮으시면 관련 연구를 저희가 한 게 있는데요. 세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있고요. Science Education이라고 하는 곳 두 군데와 그다음에 개방형 문제 중심의 프로그램이 수학적 창의력에 미치는 효과라는 수학교육에 나온 한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 나왔던 것은 객관적 시험만 치른 반의 학생보다 객관식과 서답형 시험을 치른 반의 학생이 인지적으로 적극적인 학습 행동을 더 많이 보였고, 기말시험 성적도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가 지금 하나 있고요.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방형 문제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연구 개방형 문제로 접근했을 때 학생의 독창적 융통성, 그리고 창의성에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연구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 또한 원래 Science Education에서 또 하나를 더 냈는데 그때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좀 시사적일 수 있는데 학생이 시험 유형에 따라 공부전략을 바꾼다는 연구가 있고요. 그런 연구를 했는데 객관식 시험을 예상하면 상대적으로 지식 회상이나 암기 중심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많고, 직접 답을 구성하는 시험을 예상하면 개념의 적용과 이해에 더 초점을 맞춰 공부전략을 변화시킨다는 논문을 저희는 공유하고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방금 쪽 읽어서 인용한 논문은 저도 읽었습니다. 읽었고, 맨 마지막에 인용한 시험 유형에 따라 공부전략을 바꾼다는 부분은 아까 평가가 교육을 바꾸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름표를 세운 분들이 두 번째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질문을 다 받고,

- (연취현 위원) 전은영 위원님은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처음입니까?
- (전은영 위원) 제가 지난 회의에 말을 너무 많이 했군요.

(웃 음)

- (위원장) 세 분이 남았네요. 세 분 하고 나서 이제 이런 제도를 하면 나중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비공개 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공개 전환을 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은영 위원님.

- (김경희 상임위원) 너무 오래했으니까 질의 끝나고 잠시 정회하십시오.
- (위원장) 상임위원님 말씀인데 지금 하고 전환하기 전에 잠시 휴

정,

- (김경희 상임위원) 예, 2시간 넘게 하니까 좀 쉬었다 하자고요. 질의 다 끝나고 좀 쉬었다 하자는 것이지요.
- (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은영 위원) 아쉬움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질문부터 조금 드려보면 28페이지입니다. 내신을 석차로 줄 세우는 유일한 나라이지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생각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뭔가 숙의를 하시고 계시고 어찌면 결론까지 내실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라서 지금 내신을 석차로 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 일단 여쭙고요.
- 조금 아쉬웠던 점은 발표 내내 평가를 어떻게 더 정교하게 하여 민원 없이, 공정성 시비 없이 일련의 절차들을 잘 끝을 낼까, 그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내 너무 참담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발언 안 하고 워크숍 때 차라리 말씀드릴까 했는데 지금 특위 분들을 언제 다시 뵈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학생들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신을 석차로 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와 연동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치원부터 학원 등록합니다. 발표 내내 사교육은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학생들이 뭘 해야 될까 질문 써놨는데, 아까 반상진 위원님이 질문 주셨는데 그것은 교육과정 하시는 분들이 또 하셔야지요.
- 지금 여기는 국가교육위입니다. 제가 이 대입을 주제로 하는데 논·서술로 그렇게 논의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연거푸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대입에서 논·서술을 다룰지 말지는 기존의 교육부 수준에서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 논의가 여기 기자님들이 이석하고 조금 편만한 자리가 되면 더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국가교육위는 학교에서 논·서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그 논의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지금 앞서 여기 발제 주신 내용이 10년 전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PPT로 논문 100권도 더 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한 근거와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기 KEDI 본에 이 문제에 대해 훨씬 정교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국가교육위 시점을 거꾸로 돌리시는 겁니까? 문제의식이 너무 커서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위험한 관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험 평가가 바뀌면 당연히 교육과정 바뀌지요. 그래서 평가를 바꾸서라도 교육과정을 바꿔내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논문이 없어서 우리가 못 했던 것 아닙니다. 초·중·고 학부모, 제가 혁신학교 경력이 이제 10년 정도 됩니다. 현장에서 이미 여기에 대한 답을 제법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그 학교는 학부모도 뼈를 갈아 넣어야 됩니다. 학부모, 교사 합해서 뭐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논문에 시험 유형에 따라 공부전략을 바꾼다는 이런 논문으로 현장 설득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질의를 해 주십시오.
- (전은영 위원) 질의는 아까 내신에 석차로 줄 세우는 유일한 나라, 이것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시고 이 많은 설계를 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을게요. 제가 조금 격해서 죄송합니다. 큰 문제의식 하나는 이 모든 논의가 ‘외부에서 바라보면서 이 평가를 바꿔주면 자동으로 따라오겠지.’라는 위험한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질의가 나왔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있습니까?

○ (이현 위원) 답변은 조금 쉬었다 듣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 (이현 위원) 예.

○ (보고자A) 아니요. 그냥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 (김경희 상임위원) 아니, 다 답변 듣고 하지요. 질문하시겠어요?

○ (이보미 위원) 제가 먼저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AI로 평가를 할 때 인공지능을 어쨌든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기업의 AI를 바탕으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개발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만약에,

○ (위원장)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다 얘기해도 됩니까?

○ (이보미 위원) 특별위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이광호 상임위원) 그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보미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대기업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도 우리가 GPT 하면 틀릴 수 있다는 이런 문구가 뜨잖아요.

○ (위원장) 그런 것을 다 고려하고 있고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 (윤건영 위원) 제 질문까지 듣고 답변을 하시지요.

○ (이보미 위원) 예, 하십시오.

○ (윤건영 위원) 제가 비공개로 할 때 두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

지 몰라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이제까지 논의했던 것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수준은 많이 알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30페이지에 대입제도 개편의 길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각각의 요소에 어떻게 들어갈지 일정을 딱 짜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나면 적어도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에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수능의 한계가 왔다고 그럴 때 자꾸 단편적 사고를 하는데 지금 전문가 양성하고 회사에서 사원 뽑을 때 적성 시험에 수능형 출제를 이미 다 쓰고 있거든요. 제시문 넣고 조건 넣고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간 내에 논리적 추론 사고하는 것 등 수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거든요.
- 다만, 최근에 수능 출제했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한계가 뭐냐 하면 30년 동안 문제를 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노출이 돼서 기능적으로 학원에서 문제 유형을 발굴해서 기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기능화되어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얘기하던 본래 수능의 취지에 맞는 사고력 함양에 한계가 왔다, 이것이 지금 수능을 출제한 전문가가 그래요. 저도 들어가서 같이 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논·서술형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공정성 문제를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사람이 평가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마지막에 사람이 평가할 때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교사가 하면 되지만 수능의 수십 만 명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 그리고 AI가 평가한다고 그럴 때 AI 평가를 마지막에 사람이 평가한다면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평가전문교사, 평가보직교사에 대해 논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평가한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AI rubric을 적용해서 평가하더라도 그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아이들이 다 AI에 예측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최종적인 평가의 결과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실제 일상적인 중간고사, 기말고사 관련된 것은 선생님이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단계에서 만약에 다음 논의가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3년 전에 초등학교에 수행평가는 논·서술로 간다고 공문을 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미 충북에서는 평가에 대한 역량을 기초과정 심화, 전문가 과정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서 올해 교육부가 이것 보고 내년에 따라서 한다고 그래요.
-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중에 논·서술형으로 제도가 바뀌려면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려면 그 전제로 해야 될 것, 여기 네 번째에서 말하는 교사의 전문성 함양 문제, AI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AI를 보완할 수 있는 문제, 지금 AI가 현 정부에서 내년에 당장 모든 국민들에게 Agent AI 하나씩 주겠다는 세상인데 그때 나오는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지금 몇 개 나라가 이미 국가에서 인공지능을 모든 사람에게 휴대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더 나간다는 말이에요.
-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의 과정에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교육과정 개편, 이미 2015, 2022 교육과정에서 깊이 있는 사

고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22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전제가 되어서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30년 전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전제로 놓고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시한 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이루어지면, 사교육도 지금의 사교육과 논·서술형으로 바뀐 사교육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사교육비가 증가된다고 하는 그 논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교육과 논·서술형으로 갔을 때 사교육이 어떻게 달라지는데 그러면 달라지는 그 모습하고 공교육이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 그래서 지금의 논의 구조가 진정한 전문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권한은 이게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와 무관하게 지금 다 시·도 교육청에, 지금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다 서울과 연합해서 AI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경기도와 서울은 AI 평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다음에 또 오실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 지금 전은영 위원님, 이보미 위원님, 윤건영 위원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특히 만만치 않은 선결과제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이런 말씀이고, 이보미 위원님은 AI 활용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이고, 전은영 위원님도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답변은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2시간 반이 지나

서 휴식시간을 진작 드려야 되는데 10분간 휴식하고 답변 듣고 그다음에 비공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지금 25분인데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 (간사) 5시 35분에 재개하겠습니다.

(오후 5시 26분 회의중지)

(오후 5시 36분 계속개의)

- (간사) 위원님들 들어오시고 계신데,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면 계속 시간적인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9월 9일과 9월 17일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 그리고 17일은 오전에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시간표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래는 밤 9시까지 길게 하려고 했으나 지방에 계신 분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만찬은 자유 참석이고요. 지방에 있는 분들은 미리 말씀 주시면 기차에서 드실 수 있도록 도시락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금 6시까지의 마쳐달라는 요청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착석 안 했지만 진행을 할까요?

(「예」하는 이 많음)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덕제 위원) 하세요. 35분에 시작하기로 했으니까요.
- (위원장) 질문 다 기억하고 메모하셨습니까? 전은영, 이보미, 윤건영 세 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B) 우선 어떤 AI를 쓸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교육

청은 국산을 쓰고 어떤 교육청은 외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교육특화 AI라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학습을 지원하고 평가를 지원하는 AI가 들어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고, 실제 궁극적으로는 AI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AI 발전을 그대로 온전히 평가시스템에 도입할 수 있는 전산적 구조를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구체적 진행 경과가 다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한 것이 사실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누구하고 의논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는 필요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국교위와 교육부가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 (보고자A) 제가 남해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담입니다. 교장 취임한 지 3일 됐는데 오늘이 제일 힘듭니다. 6시간 반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그리고 걱정되는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더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 대답을 드리면 일단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로드맵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전제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자, 그게 있고 다음번에 가지고 와야 된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 하지만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끼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국

민속의 단계를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또 여쭙봤었고 그런 의견들까지 다 해서 아마 본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 그리고 내신으로 석차를 줄 세우는 나라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교육자의 한 명으로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공부,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경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공정성과 변별, 시험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은 교육보다는 대입 쪽에 더 큰 무게를 싣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 오늘은 서·논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마 다음번에 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제들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구요. 그리고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 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 (전은영 위원) 다음에 뭔가 있는 것이지요?
- (보고자A) 다음에 위원님과 웃으면서 뭔가 대화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 (위원장) 오늘도 웃으면서 대화한 것 아닙니까?
- (보고자A)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말 수고 많고 감사한데요. 교사로서 진학지도를 뛰어나게 잘하신 분이시고요. 교장으로 가서 지금 취임한 지 며칠 돼서 수두 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할까 했는데 오시겠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여

기 계신 위원님들 못지않게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높으시고요. 성공해야 된다, 실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이현 위원) 분과장님과 위원님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린다고 했는데,

○ (위원장) 질문 다 했지 않습니까?

○ (이현 위원) 위원님한테 질문을 못 드린 게 있어서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그 질문까지 드리고 싶고요.

○ (위원장) 몇 가지 하지 말고 한 개만 해 주십시오.

○ (이현 위원) 우선은 아까 분과장님한테 제가 너무 낯선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충실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서·논술로 평가를 바꾼다고 했을 때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성취기준이 다 바뀌어야 될 테니까요. 교과서가 다 바뀌어야 된다는 논의까지 대입 측에서 같이 논의가 된 적이 있는지가 질문 1번이고요.

- 2번은 일단 성취기준이 바뀌어야 되니까 교과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교육과정 바꾸는 데 보통 최소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준비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해도 2030 교육과정이 될 텐데요. 2030 교육과정이 시작되면 2년 뒤에 적용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2030이 적용되는 해는 32년이 될 것이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4년차가 되어야 고등학교 3학년까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5년도에 적용이 완료된다고 보면 지금 서·논술로 가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논의를 내년에 바로 시작해도 실제

로는 2036 대학입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서·논술이 적용되는 학생들은 2032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서·논술이 적용될 텐데 10년 정도 더 남은 얘기인 것인데, 지금 서·논술 얘기가 이렇게 나와서 현재 초등학생들부터 다 흔들리고 걱정하고 사교육 시장이 들쭉거리고 이렇게까지 지금부터 우리가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된다면 공개적으로 수능이나 내신을 바꾼다는 것이 국교위의 방향으로 먼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얘기부터 차분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닐까,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 (위원장) 그 질문에 담긴 내용과 적용 시기에 관한 문제는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질문이 다 끝났기 때문에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저도 공개에서 한 말씀 올리고 비공개로 전환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 건 위원님 질문 안 했습니까?

- (김건 위원) 질문이 아니고 의견이 있어서요.
- (위원장) 가급적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김건 위원) 이것은 공개 때 말씀드릴 수 있는 의견이라서요.
- (위원장) 가급적 시간 좀 아껴주시면 좋겠는데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필요한 내용입니까?
- (김건 위원) 예. 사실 저는 관점이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원래 회의를 소집한 의의에 대해서,
- (위원장) 6시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 (김건 위원) 처음입니다.
- (위원장) 그렇습니까? 좀 짧게 해 주십시오.
- (김건 위원) 사실 저희가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게 두 분 위원님들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판적인 질문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저희가 바라볼 때 이 과정이 먼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오늘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왜 이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물론 공론화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 논의가 꽤나 선부르고 덜 영글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저희가 공론화를 대하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인천, 전남·광주, 대구에서 세 차례 진행을 했을 때 발제를 두 분께서 진행해 주셨고, 두 분 발제 외에 혹시 다른 발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그렇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서·논술형을 추진한다, 도입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서·논술형을 해야 되고 가야 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결론을 갖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화성에서 1박2일 동안 제가 후반부에 참석을 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거의 다 들었는데 제가 오기 직전에는 학부모대표 두 분, 교사대표 두 분이 오셔서 서·논술형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반반 나뉘어서 발제를 진행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공론화의 의미가 있고 완성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에서 진행됐던 세 차례의 공론화는 도발적인 말씀이지만 저는 그것을 적절한 공론화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그 차원에서 그런 질문을 27페이지에 적어놓으셨습니다. 지금의 교육과 대입제도로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됐다고 전제하고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안 된 것 같거든요, 요즘 여론을 보면. 특히 보시면 인공지능시대에 학교 교육과정 수업평가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라는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3시 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의 제목을 보시면,

- (위원장) 여기서 질문은 마치지요, 이 시간의 취지에 비추어서. 그리고 국교위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해 버리는 발언은 우리가 충조평판을 자제해야 된다고 말하듯이 전반적인 평가를 내려버리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좋고 전반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토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 그러면 질의응답을 이 정도로 마칩니다. 저는 어떤 점을 중시하면서 이 문제에 임해 왔는가, 33년간 지속되어 온 오지선다 객관식 수능이 기출문제를 피해서 정상적인 문제를 출제하기도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는 수능을 통해서 학생의 무엇을 측정하고 평가하는지, 또 어떤 학습을 유발하고 있는지를 성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고요.
- 그다음에 지금 수능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 교육과의 괴리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지도 않고 또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험과 수능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은 수능 시험 날 하루 사용할 문제풀이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 고등교육 직전까지 이런 방식의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 맞느냐는 성찰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案을 내놓지 않으면 현재대로 가는

겁니다. 33년을 했는데 지금 변화가 없으면 43년을 해야 되고 53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위원들은 다들 걱정하면서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준비 정도 등등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걱정하는 사교육 문제라든지 교사들의 준비라든지 AI의 안전한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준비 기간을 가지고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론에 부치고 있고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⑥ 차기 회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 2026년 제10차 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개최 예정

⑦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위원장) 그러면 제9차 국가교육위원회 본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 사 봉 3 타)

수고했습니다.